

동물이름이 들어있는 우리 속담 모음(I)

조 명 래

갈촌동물병원

속담(俗談)이란 예로부터 민중의 지혜가 응축되어 널리 구전되어 오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동감을 얻고 또한 널리 퍼진 민간 격언(格言)을 뜻하는 것으로 같은 말로서 세언(世諺), 속어(俗語), 속언(俗諺) 및 이언(理諺)이 사용되고 있다.

물론 속담이, 사람의 오랜 역사적 체험에서 이루어졌으며, 사리에 꼭 맞아 인생에 대한 교훈이나 경계가 되는 짧은 말인 격언과 생활의 본보기 또는 지표로 삼을 만한 귀중한 내용의 짧은 어구(語句)인 금언(金言)과 비교할 때 그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같으나, 간단명료하면서 쉽고 발가벗은 순수한 우리말의 사용과 해학적으로 구성된 문체면에서는 사뭇 다른 감을 준다.

그래서 우리 속담은 배달민족의 지혜를 담백 실은 가운데 명쾌한 위트 즉 번뜩이는 기지와 재치있는 말과 익살스러우면서도 풍자적인 말이 돋보인다.

속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민족의 특성, 재질, 정신을 이어받고, 우리들의 역사, 종교, 풍속, 제도 및 인정을 배워 자기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양과 처세에 교훈을 얻어야 한다.

정확한 우리나라 속담의 수는 알 수 없으나 대개 3,000여 개로 되어 있다. 그 중에서 저자는 7권의 참고도서를 임의로 택하여 속담으로 분류된 것에 동물 이름(짐승, 고기, 물고기, 벌레 포함)이 들어있는 속담만 발췌하여 모아 보았다. 그랬더니 속담의 수가 1,077개가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동물이름의 숫자와 같으므로, 하나의 속담에 두 종류의 동물이 들어간 중복 속담의 수(133개)를 빼고, 국어사전에서

관용어로 분류된 것이 속담으로 된 것과, 같은 내용의 속담에 동물명만 바뀐 속담, 문장의 도치로 두 개가 된 속담 그리고 조사나 술부를 바꾸어 숫자가 늘어난 것 등을 제외한다면 실제 속담의 수는 훨씬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속담중 「동물이름이 들어있는 우리 속담」이 차지하는 백분율은 약 25~30%로 상당히 높다.

편의상 속담의 차례를 정하기 위하여 속담에 나타난 동물들을 14가지로 분류하고 분류별 동물들은 가나다순으로 실었다(표 1). 총 동물의 수는 112종류이며, 날짐승, 곤충류, 들짐승, 집짐승, 바닷물고기 순으로 많았다.

동물별 속담의 수는 '속담의 수에 따른 동물들의 분포 상황'과 같다(표 2). 개체별 동물명에 속한 속담의 수는 개(175), 소(103), 말(72), 범(64), 닭(60) 순으로 많이 차지했으며, 속담이 한 개만 있는 동물의 수는 31종류, 두 개는 14종류, 세 개가 있는 동물의 수는 15개로 전체 동물 숫자의 53.5%가 한 개에서 세 개의 속담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동물분류별 속담의 수는 집짐승(493), 들짐승(164), 절지동물(140), 날짐승(122) 순으로 많았으며, 특히 집짐승은 동물에 관련된 속담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우리는 여기서 속담 본래의 강력한 메시지를 헤아리는 동시에 우리 조상들의 생활상을 엿보면서 수의 사로서 동물들에 대한 특성과 습성을 더욱 세밀하게 관찰해야겠다는 새로운 각오로 자세를 가다듬어왔다. 간략하게 동물들의 특징을 열거하고 임상수의 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참고속담을 다시 한 번 강

표 1. 우리속담에 나타난 동물의 종류와 편집목록

동물분류	해당 동물의 이름과 숫자 그리고 게재순서
1. 집짐승	1) 개 2) 고양이 3) 낙타 4) 닭 5) 당나귀 6) 돼지 7) 말 8) 소 9) 염소 10) 오리 11) 토끼
2. 들짐승	1) 짐승과 고기 2) 고슴 도치 3) 곰 4) 너구리 5) 노루 6) 늑대 7) 다람쥐 8) 두더지 9) 박쥐 10) 범(호랑이) 11) 사슴 12) 사자 13) 여우 14) 오소리 15) 원숭이 16) 족제비 17) 쥐 18) 코끼리
3. 날짐승	1) 새 2) 공작 3) 기러기 4) 까마귀 5) 까치 6) 꿩 7) 두루미 8) 매 9) 백로 10) 뱀새 11) 부엉이 12) 비둘기 13) 솔개 14) 올빼미 15) 왜가리 16) 원앙 17) 제비 18) 참새 19) 학 20) 황새
4. 상상의 짐승	1) 봉황 2) 불가사리 3) 용
5. 물짐승	1) 고래
6. 민물고기	1) 물고기 2) 가물치 3) 미꾸라지 4) 붕어 5) 은어 6) 잉어 7) 자가사리
7. 바닷물고기	1) 생선 2) 가오리 3) 갈치 4) 넙치 5) 농어 6) 망둥이 7) 명태 8) 민어 9) 복어 10) 송어 11) 조기 12) 청어
8. 연체동물	1) 굴 2) 꼴뚜기 3) 낙지 4) 달팽이 5) 소라 6) 우렁이 7) 조개
9. 강장동물	1) 해파리
10. 절지 동물	1) 가재 2) 게 3) 새우
<갑각류>	1) 노래기 2) 거미 3) 지네
<배각류 외>	1) 벌레 2) 개똥벌레 3) 개미 4) 개선충(옴벌레) 5) 귀뚜라미 6) 나비 7) 노린재 8) 매미 9) 메뚜기 10) 모기
<곤충류>	11) 벌 12) 벼룩 13) 빈대 14) 송충이 15) 이 16) 잠자리 17) 좀 18) 파리 19) 하루살이
11. 양서동물	1) 개구리 2) 두꺼비
12. 파충류	1) 거북 2) 뱀 3) 자라
13. 환형동물	1) 지렁이
14. 하등균류	1) 곰팡이

<참고도서>

- 1) 격언집 속담풀이(1982), 대일출판사.
- 2) 국민학교 표준 국어사전(1990), 교학사.
- 3) 동아 새국어사전(1994), 동아출판사.
- 4) 동아 프라임 국어사전(1988), 동아출판사.
- 5) 스피치 대백과사전(1976), 언어문화사.
- 6) 한국 속담사전(1993), 문학출판공사.
- 7) 한국어사전편찬회편 대국어사전(1981), 현문사.

조하였으나<표 3>, 각자 게재한 속담 모두를 훑어 보고 이것을 임상생활의 청량제로 삼아 자랑스런 수의사가 되는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

① 집짐승

1) 개

- 감장 강아지로 돼지 만든다.
- 강아지(강생이) 똥은 똥이 아닌가.

표 2. 속담의 수에 따른 동물들의 분포상황

수(개)	소속된 동물의 이름
1	낙타, 너구리, 늑대, 다람쥐, 두더지, 오소리, 공작, 두루미, 백로, 왜가리, 원앙, 불가사리, 가물치, 붕어, 가오리, 넙치, 농어, 민어, 복어, 송어, 조기, 청어, 굴, 달팽이, 소라, 해파리, 노래기, 개똥벌레, 노린재, 잠자리, 하루살이
2	염소, 박쥐, 사자, 코끼리, 뱀새, 올빼미, 제비, 학, 은어, 미꾸라지, 자가사리, 갈치, 귀뚜라미, 송충이
3	사슴, 여우, 기러기, 비둘기, 봉황, 고래, 명태, 우렁이, 조개, 지네, 개선충, 메뚜기, 좀, 지렁이, 곰팡이
4	고슴도치, 황새, 낙지, 나비, 매미, 모기, 자라
5	원숭이, 망둥이, 꿀뚜기
6	오리, 까치, 부엉이, 솔개, 잉어, 가재, 빈대, 이, 두꺼비
7	곰
8	족제비, 매, 새우, 벼룩, 거북
10	참새, 벌레, 벌
11	당나귀, 토끼
12	짐승과 고기, 용, 개, 개미
13	노루, 거미, 개구리
14	생선
15	뱀
16	파리
17	돼지
18	까마귀
19	꿩
22	물고기
26	새
34	쥐
35	고양이
60	닭
64	범(호랑이)
72	말
103	소
175	개

- 강아지 매주 명석 말긴 것 같다.
- 개가 똥 마다 하라.
- 개가 똥을 마다 한다.
- 개가 벼룩 씹듯.
- 개가 약과 먹듯 한다.
- 개가 웃을 일이다.
- 개가 콩엿 사 먹고 버드나무에 올라간다.
-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산다(먹는다, 쓴다).
- 개 겨 먹다가 필경 쌀을 먹는다.
- 개고기는 언제나 제 맛이다.
- 개구멍에 망건 치기.
- 개구멍으로 통량갓을 굴려 널 놈.

표 3. 속담 중 동물들의 생활상 및 특징고찰

동물이름	습성 및 특성, 사육실정, 질병 그리고 참고속담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격성 5일이면 주인을 알아봄 눈치가 빠름 짖는 개는 물지 않음 주인도 물 수 있음 못된 개는 부뚜막, 상추밭(나물밭)과 삼밭에 똥 사는 것 늙은 개는 공연히 짖지 않음. · 똥, 겨, 죽, 쌀겨, 쌀, 매주, 약과와 머무를 먹으며 도토리도 못 먹음. · 천대 받음(보름이나 초상시) 보신용 개. 쟁과 토끼사냥에 활용. 개훈련 실시. · 진날 개 사귀지 말것. · 외부기생충(개벼룩). 광견병. ● 어린 아이와 개는 괴는 데로 간다.
고양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퀴. 재주가 많음. 연기를 싫어함. · 육식을 좋아하며 식해도 좋아함. · 쥐잡이로 활용. 개와 관계. · 유산증. 치질. 쇠약. ● 고양이 덕과 머느리 덕은 알지 못한다.
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닭과 소의 관계. · 병아리의 콧병. ● 배들던 닭도 때가 되면 해 안에 찾아 든다.
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막걸리와 조를 먹음. 멧돼지 사냥. ● 돼지가 깃을 물어 들이면 비가 온다.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기도 하고 차기도 함. 콩을 좋아함. 이기증. · 잘 달리는 말이 용마. 이를 보고 나이 감정. · 말고기의 냄새. 사나운 말 길들이기. ● 말똥도 모르고 마의 노릇 한다. ● 과리도 여원 말에 더 붙는다.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받는 소는 소리치지 않음. 물기도 함. 언덕에 비비고 제 세끼를 할아춤. 성내면 무섭고 뜨거운 것을 싫어함. · 일사병(열사병). 수척증. 이기증. 식욕부진. ● 먹는 소가 똥을 누지. ● 더위먹은 소 달만 보아도 혈떡인다.
염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염소는 설사(물똥)하면 죽기 쉽다.
기타 동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겁이 많음(토끼, 노루, 꿩) · 동물의 알짜 : 곰(웅담). 너구리(모피). 노루(사향). 뱀(모피). 사슴(녹용). 사자(어금니), 족제비(꼬리) · 싫어함 : 지네(침). 뱀(땀진). · 콩을 좋아함(비둘기와 마소).

- 개 꼬락서니 미워서 낙지 산다.
- 개 꼬랑을 베게 되었다.
- 개 꼬리 삼년 두어도(물어도) 황모 못 된다.

-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
- 개다리 상제.
-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는다.

- 개도 닳새가 되면 주인을 안다.
- 개도 무는 개를 돌아본다.
- 개도 손 들 날이 있다.
- 개도 제 주인은 알아본다.
-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 개똥발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낫다).
- 개똥발에도 이승 내릴 날이(때가) 있다.
- 개똥발에(서) 인물(人物)난다.
- 개똥참외는 먼저 말는 이가 입자라.
- 개를 따라가면 칩간으로 간다.
- 개 머루 먹듯(한다).
- 개 못된 짓은 들에 (나)가 짓는다.
- 개 못된 짓은 부뚜막에 올라간다.
- 개 미워서 낙지 산다.
- 개발에 주석 편자.
- 개발에 편자(라).
- 개밥에 도토리.
- 개 방귀 같다.
- 개 빠다귀(뺨)에 은(銀) 올린다.
- 개 보름쇠듯(한다).
- 개 새끼도 주인을 보면 꼬리를 친다.
- 개 쇠 발팔 누구 알꼬.
- 개 싸움에 물 끼얹는다.
- 개 이에 벼룩 씹히듯.
- 개 입에 벼룩 씹히듯.
- 개 장수도 올라미가 있어야 한다.
- 개 털에 벼룩 끼듯.
- 개 팔이 두 낭반.
- 개 팔자가 상팔자라.
- 개하고 똥 다투라(다투다).
- 검둥개 돼지 편이다.
- 검둥개 먹감듯(먹감기듯).
- 검둥개 목욕 감긴 것 같다.
- 겨 먹던 개 쌀 먹는다.
-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를) 흥본다(나무란다).
- 고양이와 개다.
- 공부하랬더니 개잡이를 배웠다.
- 기르던 개에게 다리를 물렸다.
- 꼬리 먼저 친 개가 밥은 나중 먹는다.
- 나물 밭에 똥눈 개는 늘 저 개 저 개 한다.
- 나(저) 먹자니 싫고, 개(남) 주자니 아깝다.
- 내닫기는 주막집 강아지(라).
- 내 밥 먹은 개가 발뒤축(을) 문다.
- 노루잠에 개꿈이라.
- 눈 먼 개 짓 탐한다.
- 눈치 빠르기는 도갓집 강아지.
- 늙은 개는 공연히 짓지 않는다.
- 달 보고 개 짓기(달 보고 짓는 개).
-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쳐다보듯).
- 댕싸리 밑의 개팔자.
- 도갓(都家)집강아지 같다.
- 도둑개가 견섬에 오른다.
- 도둑놈(이) 개 꾸짖듯(꾸짖기).
- 도둑놈(이) 개에(게) 물린 셈(이다).
- 도둑(을) 맞으려면 개도 안 짓는다.
- 독서당(讀書堂) 개가 맹자왈 한다.
- 돈만 있으면 개도 명침지라.
- 두 질 개 같다.
- 뒷간에 앉아서 개 부르듯 한다.
- 드나드는 개가 핑을 문다.
- 등겨 먹던 개는 들키고, 쌀(겨) 먹던 개는 안 들킨다.
- 똥 먹던 강아지 안 들키고, 겨 먹던 강아지 들킨다.
-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 마음잡아 개장사라.
- 매달린 개가 누워 있는 개를 웃는다.
- 먹기 싫은 음식은 개나 주지, 사람 싫은 것은 백년 원수.
- 먹는 개도 안(아니) 때린다.
- 먹을 때는 개도 아니 때린다.
- 먼저 꼬리 친 개 나중 먹는다.
- 명주건대에 개똥 들었다.

- 명주 자루에 개똥.
- 목맨(목메인) 개 겨 탐하듯.
- 목 짧은 강아지 겨섬 넘겨다 보듯.
- 무는 개를 돌아본다.
- 무는 개 짓지 않는다.
- 미친 개가 천연한 체한다.
- 미친개 눈에는 몽둥이만 보인다.
- 미친개 다리 틀리듯.
- 미친개 풀 먹듯.
- 바닷가 개는 호랑이 무서운 줄 모른다.
- 발탄 강아지 같다.
- 밥 먹는 것은 개도 안 때린다.
- 범 모르는 하룻강아지.
- 복날 개 패듯.
- 불에 탄 개가죽 오그라들듯.
- 비단보에 개똥.
- 사나운 개 콧등 아물 날이(틈이, 때가) 없다.
- 사당 치례하다가 신주(神主) 개 물려 보낸다.
- 사위가 무뎠하면 개 구유를 씻는다.
- 사위 자식 개자식.
- 산 개(개새끼)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
- 산골부자가 해변 개보다 못하다.
- 삼년 먹여 기른 개가 주인 발등 문다.
- 삼발에 한번 똥눈 개는 늘 눈줄 안다.
- 상처(상추) 발에 똥 짠(똥눈) 개.
- 상처 발에 똥 짠 개는 저 개 저 개 한다.
- 새벽 호랑이가 중이나 개를 헤아리지 않는다.
- 서당 개 삼년에 풍월한다(堂狗三年映風月)(풍월을 읊는다).
- 선생(훈장)의 똥은 개도 안 먹는다.
- 센등이가 검등이고 검등이가 센등이다.
- 술에 개 누웠다.
- 쇠똥에 미끄러져 개똥에 콧박을(코방아) 찜는다.
- 수풀엿 평은 개가 내몰고 오장엿 말은 술이 내몬다.
- 시어머니에게 역정내어 개 옆구리 찬다.
- 시집가기 전에 강아지 장만한다.
- 시집살이 못하면 동네 개가 다 업신여긴다.
- 싸리 밭에 개 팔자.
- 양반은 물에 빠져도 게해염은 안 한다(친다).
- 어디 개가 짓나(어디 개가 짓느냐 한다).
- 어린 아이와 개는 피는 데로 간다.
- 여원 강아지 똥 탐한다.
- 오뉴월 감기는 개도 아니(안) 앓는다.
- 울가미 없는 개 장사(장수).
- 용가마에 삶은 개가 멍멍 짓거든.
- 울바자가 헐어지니 이웃집 개가 드나든다.
- 울타리를 허(하)니까 이웃집 개가 드나든다.
- 음지(陰地)의 개 팔자.
- 이사할 때 강아지 따라 다니듯.
- 이웃집 개도 부르면 온다.
- 일가싸움은 개싸움.
- 재강아지 눈감은 듯(하다).
- 점잖은 개가 부뚜막에 오른다.
- 점잖은 개 부뚜막에 똥 썬다.
- 점잖은 개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 정승 날 때 강아지 난다.
- 젓 떨어진 강아지 같다.
- 젓 먹는 강아지 발뒤축 문다.
- 제가 기른 개에게 발꿈치 물린다.
- 제 밭 훑는 개다.
- 제 버릇 개 즐까.
- 제 집 개에게 발 뒤꿈치를 물리었다.
- 제 팔자 개 못준다.
- 주인 기다리는 개가 지리산만 바라본다.
- 죽 쑤어 개 바라지한다(준다).
- 죽 쑤어 개 좋은 일 한다.
- 죽은 정승이 산 개만 못 하다.
- 진날 개 사귀기.
- 진날 개 사귄 것 같다.
- 짓는 개는 물지 않는다.
- 천등에 개 뛰어들듯.
- 천생연분에 보리개떡.

- 청보(靑襖)에 개똥.
- 초상집 개 같다(초상난 집 개).
- 치장(治裝) 차리다가 신주 개 물려 보낸다.
- 턱 떨어진 개 지리산 쳐다보듯 한다.
- 털토시를 끼고 개구멍을 쭈셔도 재 재미라.
- 토끼를 다 잡으면 사냥개 잡는다(兎死狗烹).
- 토끼를 다 잡으면 사냥개를 삶는다.
- 파리한 강아지 쫓지 치레하듯.
-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 허기진 강아지 물썩똥에 덤빈다.
- 현 바자에 개대가리 나온듯.
- 호랑이에게 개를 꾸어 준다(호랑이에게 개 꾸어 주기).
- 훈장의 똥은 개도 안 먹는다.
- 훗장에 소다리를 먹으려고, 이 장에 개다리 안 먹을까.

2) 고양이

- 가랑잎으로 눈 가리고 아웅한다.
- 검은(검정) 고양이 눈 검은 듯.
- 개 새끼는 집고, 고양이 새끼는 활킨다.
- 고양이가 발톱을 감춘다.
- 고양이 달걀 굴리듯.
- 고양이 덕과 머느리 덕은 알지 못 한다.
-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단다).
- 고양이 보고 반찬 가게 지키라는 격(이다).
- 고양이 보고 반찬 가게 지키라고 한다.
- 고양이 빨.
- 고양이 소하는구나.
- 고양이 앞에 고기 반찬.
- 고양이 앞의(예) 쥐.
- 고양이 앞의 쥐결음.
- 고양이 죽은 데 쥐 눈물(만큼).
- 고양이 쥐 사정 보듯.
- 고양이 쥐 생각하네.
- 과붓집 수코양이 같다.

- 괴 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 괴 죽 쭈어 줄 것 없고, 새양귀 불가심할 것 없다.
- 궁지에 든 쥐가 고양이를 문다.
- 낙태한 고양이 상(相).
- 내 마신 고양이 상.
- 눈 가리고 아웅(한다).
- 눈 먼 고양이 갈밭 매듯.
- 눈 먼 고양이 달걀 어르듯(한다).
- 도둑 고양이더러 재물 지켜 달란다.
- 도둑쟁이가 살찌라.
- 식혜 먹은 고양이 상.
- 약빠른 고양이 앞을 못 본다.
- 양반의 새끼는 고양이 새끼요, 상놈의 새끼는 돼지 새끼다.
- 영리한 고양이가 밤눈 못 본다.
- 주린 고양이(가) 쥐를 만난듯(만났다).
- 치질 앓는 고양이 상.

3) 낙 타

- 낙타 바늘 구멍 찾는 격.

4) 닭

- 계란에도 뼈가 있다(鷄卵有骨).
- 고양이 달걀 굴리듯.
- 꿩은 달걀 꼬끼오 하거든(하듯).
- 꿩은 달걀 지고 성 밑으로 못 가겠다.
- 꿩 대신 닭이다(꿩 대신 닭도 쓴다).
- 눈 먼 고양이 달걀 어르듯(한다).
- 눈치가 안는 암탉 잡아 먹겠다.
- 달걀 노른자.
- 달걀도 굴러가다 서는 모가 있다.
- 달걀로 성 치기.
- 달걀로 치면 노른자다.
- 달걀 섬 다루기.
- 달걀 지고 성(城) 밑으로 못 가겠다.

- 닭 소 보니, 소 닭 보니.
- 닭 소 보듯 소 닭 보듯.
- 닭의 갈비(鷄肋).
- 닭의 똥 같은 눈물.
- 닭의 새끼 봉이 되라.
- 닭이 천이면 봉이 한 마리.
- 닭 잡아 쥐을 나그네 소 잡아 쥐는다.
- 닭 잡아 먹고 오리발 내어 놓는다.
-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쳐다보기).
- 대통 맞은 병아리 같다.
- 머느리가 미우면 발 뒤축이 달걀 같다고 나무란다(한다).
- 물라는 쥐나 물고, 싸움닭은 물지 말라.
- 밀 알을 넣어야 알을 내어 먹는다.
- 바위에 달걀 부딪치기.
- 발뒤꿈치가 달걀 같다.
- 베돌던 닭도 때가 되면 해 안에 찾아 든다.
- 병풍의 닭.
- 봄에 깐 병아리 가을에 가서 세어본다.
- 산 닭 주고 죽은 닭 바꾸기도 어렵다.
- 새 잡아 잔치할 것을 닭 잡아 잔치한다.
- 소경 제 닭 잡아 먹기.
- 소 닭 보듯 한다.
- 소증(素症) 나면 병아리만 쫓아도 낫다.
- 쇠 고집 닭 고집.
- 쇠죽 가마에 달걀 삶아 먹으라.
- 쇠꼬리보다 닭 대가리가 낫다.
- 술취한 놈 달걀 팔 듯.
- 쌀 고리의 닭이라.
- 씨암탉 잠은듯 하다.
- 암탉 울어 날 새는 일 없다.
-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 양지 마당의 씨암탉 걸음.
- 언 수탉 같다.
- 오뉴월 닭이 여복해서 지붕을 허비라.
- 오뉴월 병아리 하룻별 쪼기가 무섭다.
- 오달지기는 사돈네 가을 닭이다.

- 오미자(五味子) 국에 달걀.
- 용의 꼬리보다 닭의 머리가 낫다.
- 조막손이 달걀 놓치듯.
- 조막손이 달걀 떨어뜨린 셈.
- 조막손이 달걀 도둑질한다.
- 조막손이 달걀 만지듯.
- 촌닭 관청에 간(온) 것 같다.
- 촌닭 관청에 잡아 온 셈이다.
- 촌닭이 관청 닭 눈 빼먹는다.
- 촌닭 장에 간 것 같다.
- 콧병 든 병아리 같다.

5) 당나귀

- 나귀는 샌님만 섬긴다.
- 나귀 등에 짐을 지고 타나 신고 타나.
- 늙은 나귀 팔려면 잘 꾸며 줘야 한다.
- 당나귀 귀 치레.
- 당나귀 못된 것은 샌님만 업신여긴다.
- 당나귀 하품한다.
- 도련님은 당나귀가 제 격이다.
- 뜨물 먹은 당나귀 청.
- 마방집이 망하려면 당나귀만 들어온다.
- 모기 밀구멍에 당나귀 신이 당할까.
- 외상이면 당나귀도 잡아 먹는다.

6) 돼 지

- 감장 강아지로 돼지 만든다.
- 검둥개 돼지 편이다.
- 관가 돼지 배 앓는 격(배 앓는다).
- 돼지가 깃을 물어 들이면 비가 온다.
- 돼지를 그려 붙이겠다.
- 돼지 발톱에 봉숭아를 들인다.
- 돼지 오줌통 몰아 놓은 이 같다.
- 돼지 원 발톱.
- 돼지 우리에 주석 자물쇠.
- 멧 돌 잡으러 갔다가 집 돌까지 잃는다.

- 모주 먹은 돼지 껌매칭.
- 양반의 새끼는 고양이 새끼요, 상놈의 새끼는 돼지 새끼다.
- 업혀 가는 돼지 눈.
- 오조 먹은 돼지 벼르듯 한다.
- 저모립(猪毛笠) 쓰고 물구나무를 서도 제 멋이다.
- 중놈 돌고기 값 치른다.
- 칠푼짜리 돼지 꼬리 같다.

7) 말

- 가는 말에 채찍질한다.
- 개발에 주식 편자.
- 개발에 편자(라).
- 거등(=임금의 나들이)에 망아지 새끼 따라 다니듯(한다).
- 게으른 말 짐 탐한다.
- 고추밭에 말 달리기.
- 굴레 벗은 말.
- 굴우물에 말똥 쓸어 넣듯 한다.
- 풀 같지 않은 말은 이도 들쳐 보지 않는다.
- 나(이) 많은 말이 콩 마달까(마다고 할까).
- 내 말이 좋으니 네 말이 좋으니 하여도, 달려 보아야 한다.
- 놓아 먹인 말.
- 눈 먼 말 위냥 소리(들고) 따라 간다.
- 눈 먼 말 타고 벼랑을 간다.
- 늙은 말 콩 더 달란다고.
- 다 닳은 대갈 마치라.
- 단는 말도 채를 친다.
- 단는 말에 채질 한다.
- 단는 말에 채찍질 한다.
- 달리는 말에 채찍질(走馬加鞭).
- 대감 죽은 데는 안 가도 대감 말 죽은 데는 간다.
- 둔한 말이 열 수레를 끈다.
- 땃말에 말아지.
- 마방집이 망하려면 당나귀만 들어 온다.
- 마소의 새끼는 시골로 보내고, 사람의 새끼는 서울로 보내라.
- 마이동풍(馬耳東風).
- 말 가는 데 소도 간다.
- 말 갈 데 소 간다.
- 말 갈 데 소 갈 데.
- 말 갈 데 소 갈 데 다 다녔다.
- 말고기를 다 먹고 무슨 냄새가 난다고 한다.
- 말고기 죄판인가.
- 말게 실렸던 것을 벼룩 등에 실을까.
- 말 꼬리에 파리 같다.
- 말똥도 모르고 마의(馬醫)노릇한다.
- 말똥에 굴러도 이생(이승)이 좋다.
- 말똥이 밤알 같으냐.
- 말 삼은 소 짚신이라.
- 말 잃고 마굿간 고친다.
- 말 잡은 집에서 소금 낸다.
- 말 타면 경마잡히고 싶다.
- 말 태우고 버선 깎는다.
- 말 한 마리 다 먹고 말 냄새 난다 한다.
- 먹기는 발장(撥長)이 먹고 뛰기는 말더러 뛰란다.
- 먹니는 파발이 먹고 뛰기는 역마가 뛰다.
- 무는 말 있는데 차는 말 있다.
- 비바리는 말똥만 괴어도 웃는다.
- 사나운 말에는 별난 길마 지운다.
- 사람의 새끼는 서울로 보내고 마소 새끼는 시골로 보내라.
- 생마(生馬) 갈기 외로 질지 바로 질지.
- 생마 잡아 길들이기.
- 설삼은 말대가리(갈다).
- 센 말 궁둥이 같다.
- 싸리말을 태워라.
- 야원 말이 짐 탐한다.
- 여물 안 먹고 잘 걷는 말.

- 역마도 갈아 타면 좋다.
- 역하직성(驛馬直星).
- 우마(牛馬)가 기린되랴.
- 의주 파밭도 똥 놀 때가 있다.
- 장사(壯士)가 나면 용마(龍馬)가 난다.
- 장사 나면 용마 나고, 문장(文章) 나면 명필(名筆) 난다.
- 장수 나자 용마 난다.
- 제 언치 뜯는 말이라.
- 제주 말 제 갈기 뜯어 먹기.
- 주마간산(蛛馬看山).
- 천리마(千里馬) 꼬리에 쉬파리 따라 가듯.
- 큰 말이 나가면 작은 말이 큰 말 노릇한다.
- 파리도 여윈 말에 더 붙는다.
- 하룻망아지 서울 다녀오듯.
- 한 마리 고기 다 먹고 말 냄새 난다고 한다.
- 한 말 등에 두 길마 질까.

8) 소

- 가을 물은 소 발자국에 핀물도 먹는다.
- 개 쇠 발팔 누가 알꼬.
- 개천에 든 소.
- 곤자소니에 발기름이 끼었다.
- 관(=도축장)에 들어가는 소.
- 기운이 세면 소가 왕노릇할까(왕노릇하나).
- 길마 무거워 소 드러누울까.
- 나중 난 뿔이 우뚝하다.
- 남이 놓은 것은 소도 못 찾는다.
- 네 답이 아니면 쇠뿔이 빠지랴.
- 네 쇠뿔이 아니면 내 답이 무너지랴.
- 누운 소 똥 누듯 한다.
- 누운 소 타기.
- 느린 소도 성별 적이 있다.
- 늪은 소 콩밭으로 간다.
- 닭 소 보니, 소 닭 보니.
- 닭 소 보듯, 소 닭 보듯.
- 닭 잡아 꺾을 나그네 소 잡아 꺾는다.
- 대신댁 송아지 백정 무서워 할 줄 모른다.
- 더위먹은 소 달만 보아도 혈떡인다.
- 덴 소 날치듯 한다.
- 도둑놈 도 몰듯.
- 동네 송아지는 커도 송아리지라고 한다.
- 두덩(두렁)에 누운 소.
- 두 동서 사이에 산 쇠다리라.
- 드문드문(띄엄띄엄) 걸어도 황소걸음.
- 들 적 머느리 날 적 송아지.
- 뜯 소 올 넘는다.
- 마소의 새끼는 시골로 보내고, 사람의 새끼는 서울로 보내라.
- 말 가는 데 소도 간다.
- 말 갈 데 소 간다.
- 말 갈 데, 소 갈 데.
- 말 갈 데 소 갈 데 다 다녔다.
- 말 삼은 소 짚신이라.
- 먹는 소가 똥을 누지.
- 목마른 송아지 우물 들여다보듯.
-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
- 바늘 구멍에(서) 황소 바람 들어 온다.
- 바늘 도둑이 (황)소 도둑 된다.
- 반는 소는 소리 치지 않는다.
- 방동이 부러진 소, 사돈 아니면 못 팔아 먹는다.
- 불 난 강변에서 덴 소 날뛰듯 한다.
- 빈 집에 소 매었다.
- 뿔 뺀 쇠 상(이라).
- 사람의 새끼는 서울로 보내고 마소 새끼는 시골로 보내라.
- 새끼 많이 둔 소 길마 벗을 날 없다.
- 서편에 무지개가 서면 개울 너머 소매지 마라.
- 섬 속에서 소를 잡아 먹겠다.
- 소가 크면 왕 노릇하나.
- 소 같이 먹는다.
- 소 같이 벌어서 쥐 같이 먹어라.
- 소 궁둥이에다 꼴을 던진다. (다음호에 계속)